

지역 소식통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속도

고창군이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원안결로 통과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선7기 고창군은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을 군정방침으로 주민 참여 속 창의적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가고 있다. 문체부에선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창군을 포함한 10개 예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2021년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군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과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예비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점검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 의 장단은 2일 부안군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날 오전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을 비롯한 의 장단은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 준비 상황 및 시행 상황을 확인하고 1년 넘게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등 보건소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읍시, 오늘부터 6월말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최대 50%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일부터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

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

# "지역 거주지로 주소이전 적극"

부안군수, 3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서

국민 복리증진 기여 부안해양서 이승표 경사 표창 등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2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3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30년 뒤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안실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지역내 거주지로의 주소이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지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수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을 통한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 공항 마라나 및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통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도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군수는 또 "3월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달"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접종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백신별 특성에 맞는 보관과 접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분청 직원 100명 이내로 진행됐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으로 부안 해양경찰서 위도파출소 이승표 경사, 김성문 경사, 이승곤 상경이 부안군수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지난 월 14~15일 위도 전역 정전발생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위도발전소 배터리 충전기를 긴급 이송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제 3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개최

4월 15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2주년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제54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5월 8일)' 개최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 농민봉기의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결과 등을 담은 '제 3회 동학농민혁명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을 확보·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 15일 까지 정읍시 홈페이지

(http://www.jongup.go.kr)에 공모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고부 농민봉기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해 애국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한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정당한 역사적 평가 이뤄지는 날까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063-539-54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말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을 알린 고부 농민봉기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UCC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 접수 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단체)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 15일 까지 정읍시 홈페이지

# 정읍시,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 정기반 모집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1년 정읍사공원 유아숲체험원 정기반을 모집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놀이 공간이자 교육 시설이다.

시는 2019년 정읍사공원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지난해 1,4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가 계절별·주제별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눠 평일 2회(오전 10:00~12:00, 오후 13:00~15:00) 진행 한다.

정기반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월·수요일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정기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산림복지과 담당자 이메일(1j2603@korea.kr)로 접



수하면 된다. 수시반은 화·목·금요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http://www.jongup.go.kr/reserve/index.jongup)을 통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숲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최종필 회장 "지역 상공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 24대 임원진 구성 완료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6일 정읍사예딩홀(2층)에서 개최된 제24대 회장 및 임원진 구성을 위한 임시의원 총회에서, 단일후보로 나온 최종필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제24대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부회장 10인, 상임의원 15인, 감사 2인 등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필 회장은 취임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회원들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하여 지역 상공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직접



회원사를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면서 풀어나가고, 또한, 각 기관과 도청, 시청, 군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위탁·협력사업을 유치해 회원들을 위한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타 상공회의소들과 협력체계

를 갖추어 더 발전된 회의로써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회원들이 마음을 합하는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임원포함)의 임기는 2021년 2월 말까지 3년이다. 최종필 대표는 정읍 출신으로 정읍고, 원광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상공회의소 총 18년 의원 활동 중 12년간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정읍시 초·중·고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정읍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읍시 생활체육회장, 민주평통자치문화의정읍시 협의회장,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장, 정읍시민정학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